

18일 촛불은 두 배로! 25일 전국집중 '끝장 보자!'

8 박성식 | ① 승인 2017.02.11 19:11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2월 탄핵, 특검 연장" 50만 합성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소원지를 태우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연인원 1천만 명을 훌쩍 넘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2월 들어 다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이 임박해오고 버티고 휘방하는 박근혜 세력의 간교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오늘 집회에서 퇴진행동을 대표해 기조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18일은 오늘 모인 것에 2배, 25일은 전국 촛불이 서울에 전부 모여 끝장을 보자"고 외쳤다.

오늘 15차 촛불에선 다시금 국민의 명령임을 확인하며 "2월 탄핵"과 "특검 연장"이 강조됐다. 퇴진행동은 또한 오늘 대회를 주최하기에 앞서 소위 "관제데모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비교하지 말라"며 민주주의를 모욕하거나 마치 국민이 갈등과 혼란에 빠진 것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시민들의 자유발언도 다시 뜨거워졌다. 서울 강동구에서 온 시민은 "내려오면 대박이고 버티면 쪽박"이라는 자유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끄러워 못살겠다"며, "최악보다 차악 뽑는 그런 선거 집어치우고 국민 위해 제대로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한 대학생은 "우리마저 침묵한다면 따뜻한 봄 대신 덥고 짜증나는 여름이 온다"며 서로를 격려하자고도 했다.

대중가수 뜨거운 감자의 리더 김C는 "(촛불에서)거대한 힘을 느꼈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며 공연에 나섰다. 그러나 김C는 "어쩌면 (지금은)종착역이 아니라 시작 같다"며 힘내자고 시민들을 격려하고, "결국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광화문광장 집회 후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 방향으로 행진했다. 18시부터 시작된 본 대회에 앞서서는 광장 주변 20여 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으며, 오늘도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도 박근혜 2월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25일에는 전국의 촛불이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촛불이 커지며 다시 돌아오고 있다.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 파도를 타고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즉각 퇴진"과 "2월 탄핵", "특검 연장" 등을 외치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 변백선 기자



올해 처음으로 가장 많이 모인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광화문광장에 70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퇴진 보름달'이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대 차량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탄핵과 적폐 청산, 재벌총수 처벌 등을 바라며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촛불집회 기초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 변백선 기자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1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 변백선 기자



'비정규직, 정리하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 만드는 '1박2일' 대행진'단이 2일째 일정을 시작하며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처벌하고, 비정규직, 정리하고 노동탄압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대행진을 국회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투쟁의 대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요구가 담긴 대나무 만장에 새끼줄을 엮어 그 줄에 소원지를 매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